

# 광양시, 2022 최고경영인상·최고근로인상·산업평화상 선정

광양시는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 평화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업인과 근로인을 발굴해 '최고경영인상, 최고근로인상, 산업평화상' 수상자를 최종 선정·발표했다.

올해 광양시 '최고경영인상', '최고근로인상', '산업평화상' 수상자로 ㈜SNNC 김준형 대표, 포스코 광양제철소 유철종 과장, ㈜포스코엔텍 이희근 대표가 각각 선정됐다.

'최고경영인상'에 선정된 ㈜SNNC는 2008년 국내 최초 페로니

켈 공장 건설을 통해 니켈 제련 기술의 향상과 국가 전략 광물 확보에 이바지했으며, 2차 전지 핵심 원료인 고순도 니켈 Matte를 통해 K-Battery 산업에 신규 투자하는 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지원,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

고 있다.

'최고근로인상'에 선정된 포스코 광양제철소 유철종 과장은 1991년 입사 후 포스코 제강공장 에서 '용강의 리드타임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제강 기술 기반 구축으로 세계 최고 제철소 실현에 일조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했다.

아울러 숙련기술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자기개발로 다수의 특허, 실용신안, 노하우, 제안 등을 등록하

고 발마사지 봉사단, 응급처치교육 재능봉사단, 도심지역 깨끗한 해양지킴이 재능봉사단 등 봉사단체 활동도 꾸준히 펼치며 나눔 실천에도 솔선수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평화상'에 선정된 ㈜포스코 엠텍은 포스코와 해외제철소에 철강부원료를 공급하고 철강포장에 관한 작업을 수행하며, 철강제품 포장 및 설비 엔지니어링, 소재사업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유빈 기자

## 곡성군, 민방위 업무 평가 우수기관 표창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전남도로 부터 2022년도 민방위 업무 발전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지난 5월 곡성군은 전남도로부터 민방위대 편성 현황, 교육 훈련 운영, 시설 및 장비 현황 등에 대해 검열을 받은 바 있다. 그 결과 민방위 업무 전반에 대한 탁월함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당시 전라남도는 8월 을지연습 우수 기관과 함께 표창을 수여하기 표창 수여를 미루다가 시상식을 진행했다.

곡성군은 민방위대 편성 및 장비 관리, 교육 훈련, 비상 대피 및 급수 시설 계획 등을 꼼꼼하게 수립했다는 평을 받았다. 수립 이후에도 자체 검열을 통해 편성과 시설 및 장비비를 수시로 보완하며 민방위 지원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유사시 주민의 원활한 대피를 위해 비상 대피 시설의 관리 책임자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규모와 경로, 대피 인원, 안내 표지판, 유도 표지판, 비상용품함 등 고려해 구체적인 비상 대피

계획을 수립해 유지 관리하고 있다. 위기 상황에 대비한 훈련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국지 도발, 전시 등 비상 사태 발생에 대비해 민관군 합동 비상 급수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을 통해 곡성군은 단전 및 상수도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비상 급수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실효성을 검증하는 데에 힘을 쏟았다. 해당 훈련은 전라남도 지정 실제 훈련으로 비상 급수 시설의 관리 상태 확인과 급수 적재, 주민 배분까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관 기관 간 협조 체계 구축이 중요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민방위 대원들이 본인의 임무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도 내실 있게 운영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집합 교육과 비상 소집 훈련 등 대면 교육 실시가 어려워지자 곡성군은 모든 연차별 대원에 사이버 교육을 선제적으로 운영했다.

/심선섭 기자

## 여수시, 자연재난 사전대비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4일까지 사전대비에 나서고 있다.

시는 먼저 13개 기능 19개 협업부서로 T/F팀을 구성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제설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피해 우려시설 안전관리 강화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겨울철 기상특보 발령 시 단계별 상황대응을 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정비하고 제설장비와 자재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중장비의 경우 여수시 건설기계연합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동원장비로 지정하고, 응급복구 상황발생시 긴급 투입할 예정이다.

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근로자 등 한파위험 노출자에 대한 예방대책도 마련한다.

수도시설 동파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한파 취약계층 안전관리에 나서는 한편,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방풍막 등 각종 한파 저감시설과 한파 쉼터 400여 개소에 대한 사전점검도 실시한다.

최영철 여수시 재난안전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겨울철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만큼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유빈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최근 순천시의회와 순천시 여성·가족 유관기관 및 성평등 순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 70여 명과 함께 '제7차 전남 성평등 릴레이 포럼'을 개최했다.

## 순천시, 순천시의회와 함께 성평등 포럼 열어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최근 순천시의회와 순천시 여성·가족 유관기관 및 성평등 순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 70여 명과 함께 '제7차 전남 성평등 릴레이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순천시 성평등 정책 추진 여건 및 전망'을 주제로 전남 여성가족재단 정인경 정책연구팀

장의 기조 발제로 시작했다. 이어 순천시의회 의원들의 릴레이 발언과 성평등 도시 순천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의원을 좌장으로 5명의 의원(김미연 의원, 유승현 의원, 장경순 의원, 장경원 의원, 최현아 의원)이 순천시의 성평등 현안을 살피고 의정 활동 방향을 밝히는 릴레이 발언에

나섰다. 정병희 순천시의회 의장은 "오늘 포럼이 시민 모두가 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해 시의회와 행정, 시민들이 함께 고민해 보고 대안을 찾아보는 토론의 장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의회에서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더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 김순호 구례군수, 대학생들 위한 고향의 보금자리 지원 사업 추진

구례군이 타 지역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구례군민들을 위한 주거생활비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최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고향의 보금자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꼼꼼한 현안업무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군수는 타 지역에서 공부하는 구례군민들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고향의 보금자리 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과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예정돼 있던 행사들의 연기 및 축소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 제110회 열린강좌 홍보, 진행 중인 현안사업의 꼼꼼한

마무리 등 적극적인 군정 수행을 주문했다.

구례군은 다른 지역의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씩 주거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고향의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하반기 고향의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11월 30일까지 약 1개월간 신청을 받으며 신청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방문·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중 선택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지원 기준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례군이어서 하며,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건식 기자

**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 결사반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전투기 소음에서 지켜주세요

황토와 갯벌, 생명의 땅 무안에 군 공항 이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안군